

청소년의 성지식 요구

이 은 주*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90년대에 들면서 집중적으로 보도된 청소년들의 성관련 범죄 및 피해로 청소년들의 성의식과 성행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어느 때보다도 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성교육은 생애교육, 평생교육으로 출생시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이루어져야(제주도교육청, 1996)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성교육자, 상담자가 되어야 할 성인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제대로 성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고, 성에 대해 잘 몰라서 청소년에게 지도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고정관념에 매어 그들의 관점과 경험에서 청소년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들에게 다가가기 어렵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매우 어렵게 주어진 성교육 시간이 지겹고,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반복할 뿐이라고 주장한다(양해경, 1996).

청소년의 성에 대한 지식 정도와 태도, 요구도에 관한 연구(김소야자, 1986; 김귀희, 1986; 박영희, 1989; 이옥철, 1990; 이은정, 1990; 최순희, 1990)는 대부분 우리 사회의 성고정관념을 반영한 성지식 혹은 성태도에 근거하여 작성된 설문지를 기초로 나온 것들이었고, 그 결

과가 성교육에 반영되어 왔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은 성인이 성에 대해 알아야 할 것, 취할 수 있는 태도와 청소년들의 그것에 대한 암묵적 경계를 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성지식 요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지식 요구는 성을 무엇이라고 보는 것-성에 대한 이해-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나온 것이 대부분이었다.

성은 우리의 정체성과 사회와의 관계축을 형성하는 접합점이며, 이는 현재와 미래의 성장, 복지, 건강 그리고 전체 인구의 증식과 관련된다(웁스, 1986/1994, p. 46).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간호사의 관심이 생식기 관련 질환으로만 축소될 수는 없으며, 성적 존재로서의 청소년에 대한 간호사의 관심은 성을 둘러싼 청소년들의 현재적, 잠재적 건강 문제를 예방, 해결하고,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간호사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런 지식 요구가 생기게 되는 근원으로서의 성에 대한 이해를 밝히는 것이다. 이런 노력은 성교육자로서의 위치 확립을 위해 애쓰고 있는 간호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알고 싶거나

*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강사

배우고 싶은 것'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그들의 성지식 요구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청소년들의 성지식 요구를 파악하는 것은 그들의 이런 요구에 깔려 있는 성에 대한 이해를 드러낼 수 있으며, 일방향적인 성교육에서 탈피하여, 그들의 지식 요구에 맞는 성교육과 상담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의 성지식 요구의 내용을 파악한다.
- 2) 청소년의 성지식 요구의 집단별(성별, 학년별) 차이를 알아본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이 임의 표출되어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며, 응답 방식이 참여자들이 직접 서술하는 것이어서 서술의 어려움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4. 용어 정의

성지식 요구란 성에 관하여 알고 싶어하거나 배우고 싶어하는 것으로 성적 충동, 행위 및 경향, 생식기관 해부생리, 재생산, 성건강, 사춘기의 변화, 성문화, 성 개념, 이성교제, 그리고 기타 등 9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II. 연구 배경

'성性'은 '마음心'과 '생기다生'라는 글자의 음과 뜻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형성자로, 이는 사전적으로는 천성, 마음의 본체, 마음의 작용, 그리고 남과 여 또는 암컷과 수컷이라는 뜻을 가진다. 영어 'sex'의 어원은 라틴어 *sacare*나 영어의 *seco*로 원래 한 몸이었던 남녀를 신이 둘로 절단했다고 하는 신화에서 유래한 것이다(안창선, 김현욱, 1991, p.3). 웨스(1986, p.16)는 'sex'라는 용어는 16세기에 처음 사용되었으며, 이때 이 용어는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간의 엄정한 분할, 즉 성별적 차이와 관련해서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19세기 초 이후 '성'라는 말이 담고 있는 지배적인 의미는 양성간의 육체적 관계, 즉 '성관계를 맺는 것'과 연관되었다. 한편 성에서 '섹슈얼리티sexuality'라는 개념은 19세기를 거치면서 생긴 것으로(푸코, 1980/1991), 성적인 sexual 것의 특질을 의미하는 용어가 되었다.

이상의 내용은 성이라는 용어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

고 있는 의미로 사용된 것은 역사적으로 그리 오래 전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성이라는 용어가 다양한 함의를 가지고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성'이라는 용어는 '생물학적 성별biological sex', '성역할gender 혹은 사회적 성별', '육체적 성관계 sexual relationship', 그리고 '섹슈얼리티sexuality'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성은 명확하게 구분되기보다는 때에 따라 이들 중의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개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다(심영희, 1992, p.15).

본고에서는 성적 존재로서의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 청소년의 섹슈얼리티와 청소년의 성교육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청소년의 섹슈얼리티

우리 시대의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관점은 그들은 성적 존재이긴 하지만 그들의 성은 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적sexual이면서도 그것이 억압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청소년의 섹슈얼리티의 표출의 합법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결혼연령이 언제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결혼제도는 성규제의 방식을 결정하고 성규범과 성윤리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사회제도이기 때문이다(이영자, 1994).

서구에서 중세의 교회법은 사춘기, 즉 남자는 열 네 살, 여자는 열 두살에 달하면 결혼을 허용하였고, 이러한 법은 고대 로마법의 법정 결혼 연령이 그대로 계승된 것이며, 교회법학자는 그것을 더욱 확대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플랑드랭, 1981/1994, p.334). 중세 초기 교회는 청소년들의 성행동을 금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사춘기에 달하면 부모들은 자식을 곧 결혼시켜야 한다고 명하였다(p.335).

그러나 17-19세기에 이르면서 서구 청년의 성생활은 두 가지 레벨에서 특징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첫번째 레벨은 윤리적인 것으로 성생활이 결혼생활 내부에서만 올바른 것으로 간주되고, 결혼 외에서의 금욕은 특히 여성에게 엄격하였지만 남성에게도 요구되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인구학적 레벨에서 결혼 연령이 점점 높아졌다는 것이다(p.333). 결혼 연령의 증가는 성욕의 해결을 위해 결혼 이외의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증가시켰고, '반자연적인 죄'인 자위행위에 대한 제제가 비로소 가해지기 시작했다(p.355).

18세기말이 되면서 섹슈얼리티는 교육, 의학, 경제를

매개로 더 이상 종교적인 것이 아닌 세속적인 문제이자 국가의 문제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회체 전체와 사회안의 개인들 하나 하나가 스스로를 감시하도록 하는 문제가 되었다. 푸코(Foucault)는 이 과정에서 섹슈얼리티에 대한 압과 권력의 특수한 장치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여성육체의 히스테리화, 어린이의 성에 대한 교육화, 생식행동의 사회관리화, 그리고 도착적 쾌락의 정신의 학으로의 편입이라는 4가지의 전략들이 동원되었다고 주장한다(푸코, 1976/1990, p.117). 여기서 '어린이의 성에 대한 교육화'는 모든 어린이는 성적 활동에 몰두하거나 몰두하기 쉽고, 그러한 성적 활동은 부당하며, 자연스럽고 동시에 자연에 반하기 때문에, 육체와 정신 집단과 개인을 해칠 위험이 그것 자체에 도사리고 있다는 이중적인 가정에 기반하였다. 어린이는 위험한 분할선 위에서 예비단계를 밟고 있는 성적 존재로 규정되었다. 그래서 부모, 가족, 교사, 의사 그리고 나중에는 심리학자가 귀중하고 위태로우며 위험하고 위험에 처해있는 그 성의 싹을 끊임없이 떠맡게 되었다. 이런 교육화 과정은 서양에서 거의 두 세기동안 지속되어 온 자위에 대한 싸움으로 나타났다(p.118).

하지만 200년이나 지속되어 온 자위에 대한 싸움은 이미 끝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성교육 지침서들은 자위행위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자위행위를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한 것처럼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 도덕적 타락감, 죄책감 등에 사로잡힐 수 있다고 권고한다(서울시교육청, 1998).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춘향전」에서와 같은 청소년의 이성간의 성관계는 탈선행위로 금기시 되고 있지만, 홀로 하는 자위행위는 자제할 수 없는 성욕과 성충동을 발산할 수 있는 용납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이다.

우리 시대에 청소년이라고 불리는 존재는 어떤 종류의 성도 알아서는 안되며, 보아서는 안되고 들어서도 안된다는 선언으로 되지만, 그것은 그들이 성과는 무관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성적으로 충만해 있는 존재로 워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시한폭탄을 하나씩 손에 들고 있는 테러리스트만큼이나 불안한 존재로 주시되고 감시되고 보호된다(이지연, 1994). 사회는 그들에게 경제적 무능, 정신적 미성숙 때로는 육체적 미완성이라는 이유로 성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보장하기 위해 때로는 성교육을 동원하여 그들이 이에 근접할 수 없음을 확인시키려 한다.

청소년기는 그 자체로서의 특성보다는 성인의 그것에 비교되어 서술된다. 이렇게 '미완성인' 청소년기라는 관

점은 인간의 성적 발달과정이 도달해야 할 정상점과 그에 이르는 정상적인 발달과정이 있다는 생각을 반영한다. 하지만 청소년이라는 시기적 규정과 이들의 섹슈얼리티의 표출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정상점의 규정은 법규에서조차 들쭉날쭉이다(이광재, 1990; 최은순, 1998). 그러나 문제는 어느 연령에서 정상적, 합법적, 도덕적 성행위가 가능한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들의 성을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섹슈얼리티의 자연스러움을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억제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중성이 청소년의 '시한폭탄' 같은 섹슈얼리티 그 자체보다 위험한 것일 수 있다.

2.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우리 나라의 학교 성교육은 1950년대 '정결교육'으로 시작되어, 60년대는 '순결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1970년대부터는 '성교육'으로 진행되어 왔다. 1980년대에 이르러 문교부는 성교육 실시를 1982년도에 발표하였고, 그 다음 해인 1983년에는 '성교육 지도자료'를 발간하였다. 1984년에는 이미 발간된 교사용 '성교육 지도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체계적인 성교육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결과 학교교육에 '성교육'이란 용어가 정착되기는 하였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대부분 형식적인 성교육에 그치거나 혹은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김정옥, 1988).

학교 교육에서 성교육이 부실했던 것은 성적 중심의 교과 편성으로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양해경, 1996), 교재나 자료의 부족, 교사들의 지도할 내용과 방법에 대한 무지(홍길유, 1989; 김설희, 1991; 김옥순, 1991; 안창선, 김현옥, 1991) 등 때문이었다. 하지만 성교육의 부실과 부재는 학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청소년의 성을 아예 무시하거나 아니면 이에 대해 무지한 것이 더 근본적인 이유일 것이다.

그럼에도 성교육의 요구도나 필요성에 대한 연구(김귀희, 1986; 방미라, 1990; 이옥철, 1990; 최순희, 1990; 김옥렬, 1995), 청소년들의 성지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김귀희, 1986; 김소야자, 1986; 박영희, 1989; 이은정, 1990; 장경숙, 1996) 적합한 성교육 실시 시기와 성교육자에 대한 연구(이옥철, 1990), 그리고 교육담당자인 교사나 부모의 성지식이나 태도에 관한 연구(김차영, 1990; 이은정, 1990; 최순희, 1990) 등이 이루어졌다. 이 연구들의 결과는 학생, 교사, 혹은 부모들은 성에 대한

지식은 집단 내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나, 지식 정도가 높을 수록 대체로 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들은 '어느 선까지의' 성에 대한 지식이 '어떤'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동료집단이나 대중매체 등을 통해 그릇된 성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교사 혹은 부모'에 의한 '올바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학교 성교육은 1990년대 후반에 오면서 청소년기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나 임신 및 출산과 청소년기 남성들의 성폭력 가해 문제가 집중적으로 보도되면서(한겨레, 1996a, 1996b, 1996c, 1996d),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게 된다. 교육부는 1996년 2학기부터 학생생활지도계획을 각 교육청에 시달하면서, 여학생들에 대한 성폭행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정규교과시간에 이를 실시하도록 하였다(한겨레, 1996e).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1997년부터 정규교과서를 가지고 성교육을 하도록 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남녀 신체의 생물학적 구조, 이성교제, 성폭행 예방법, 성병예방과 치료 등 4가지 주제로 구성하였다(조선일보, 1996). 또 성교육의 적극화 시도는 성교육담당자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로 여겼던 성교육 교재 혹은 지침서 개발이 교육 당국(예: 제주도교육청, 1996; 서울특별시교육청, 1996, 1998)과 민간단체(예: 여성사회교육원, 1997; 한국성폭력상담소, 1997)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전국적으로 성교육의 방향 모색을 위한 여러 가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예: 가족과 성장담소, 1996; 여성담소, 1996).

하지만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성교육을 하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있으며, 또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에서 나온 순결 교육이나 성의 해부 생리교육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윤가현, 1996). 우리 사회의 성교육은 청소년들을 옴아매고 있는 감시의 시선이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들에게 보다 밝고 적극적인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그들 자신이 성적인 존재임을 스스로 알도록 할 수 있고, 성교육 과정을 통해 성적으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알고 있는 성은 성교를 유일한 목표로 하는 성임에도 불구하고 성교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만은 지운 채, 실제로는 성교를 그 정점으로 해서 이루어진 지식들을 늘어놓는 모순 속에 갇혀 있다(이지연, 1994). 뿐만 아니라 이전에 간과되어 오던 성폭력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오히려 성폭력은 피해자가 유발한 것이니(피해자 유발론) 이런 유발행위를 하지 않도

록 주의해야 한다는 식의 성폭력피해 예방교육이 성교육에서 중심적인 내용이 되었다(윤가현, 1996). 이런 경향은 90년대의 성교육의 전환적 계기가 어린 여학생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빈발이었던 것에 연유할 것이나, 우리 사회에서의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성역할에 대한 이중적 규범을 강화하는 계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인성교육 평생 교육으로서의 성교육에 대해 아직 '누가(교육자)' '언제(교육시기)' '무엇을(교육내용)' '어떻게(교육방법)'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성교육의 한 쪽 주체인 부모나 교사, 교육기관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의해 내몰리고 있고, 또 다른 주체인 청소년들은 그들의 '자연스러운' 욕구와 사회적 역할이라는 계곡 사이에서, 엄청난 힘으로 흘러오는 성정보라는 급류를 헤쳐나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 형편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임의로 선정된 1개 남녀 공학 중학교와 남·녀 고등학교 각 1개 학교의 1, 2 학년에 재학 중인 8개 학급의 학생, 282명이었으나 질문지를 제출하고 성에 관한 질문을 쓴 사람은 사람은 267명(92.3%)이었다. 무응답자(15명, 7.7%)는 질문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아무 것도 쓰지 않거나, '없다'라고 한 경우로 모두 남학생이었으며, 중학교 2학년 10명, 고등학교 1학년이 5명이었다(표 1 참조).

〈표 1〉 대상자의 학년별 성별 분포 단위: 명

	학년/성별	여학생	남학생	소계
중학생	1학년	33	34	67
	2학년	36	27	63
	소계	69	61	130
고등학생	1학년	39	31	70
	2학년	36	31	67
	소계	475	62	137
계		144	123	267

(무응답자 제외)

2.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한 도구는 학년과 성별만 표시하게 된 용지로, 여기에 '성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나 배우고 싶은 것'을 세 가지씩 쓰도록 요구하였다.

3. 자료 수집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임의로 선정된 각 학급 단위로 실시되었다. 먼저 교사들에게 동의와 협조를 구한 후 연구의 목적, 익명의 보장 그리고 질문지 작성요령을 설명하였다. 교사들은 7개 학급의 자료수집에 협조하였으며, 1개 학급(중학교 2학년 남학생)은 연구자가 직접 학생들에게 용지를 나누어주고 작성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은 1999년 2월 11일-12일 2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4. 자료 분석

자료분석은 내용분석 기법을 이용하였으나, 처음부터 분석의 틀을 정한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의 응답 내용에 따라 범주화하고, 명명하였다(분석 전에 각 연구 참여자에게 번호를 부여하였다. 첫번째 알파벳 M과 H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두번째 F와 M은 성별, 첫번째 자리수는 학년, 그리고 마지막 두 자리 수는 각 집단별 학생번호. 예: MF101은 중학교 여학생 1학년 01번).

분석의 첫 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의 성에 대한 지식 요구를 내용별로 분류하여 1차적으로 모은 후(지식요구 세부항목), 이를 다시 좀 더 큰 개념으로 분류하고(지식요구 하부항목), 그리고 다시 포괄적인 개념으로 묶었다(지식요구 항목). 예를 들어, "왜 한 달에 한 번 빨간 날이 있어야 하나요"라는 지식요구는 생리의 '기전/주기/기간/양'이라는 세부항목에 분류하였으며, 이는 또 '생리'라는 하부 항목으로 그리고 다시 '생식기관 해부생리'이라는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이런 분류과정은 두 번 반복하였고, 이 과정에서 분류된 항목이 일치되지 않은 참여자의 응답에 대해서는 질문의 함의를 다시 고려하여 처리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각 항목, 하부항목 및 세부항목을 전체적 빈도와 성별 및 학년별 빈도와 요구 내용의 차이를 보기 위해 비교하였다.

IV.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들이 성에 대해 알고 싶거나 배우고 싶은 것으로 제출한 질문의 개수는 총 779개로 중학생 408개, 고등학생 371개, 여학생 456개 남학생은 323개였다(표 2 참조). 질문 용지를 줄 때 연구자는 '성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나 배우고 싶은 것'을 3가지씩 쓰도록 요구했으나, 참여자들 중에는 1개를 쓴 경우도 있었고, 최대 11개의 질문을 쓴 경우도 있었다. 참여자들이 성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을 3가지 이상을 쓴 경우, 참여자들의 질문 목록에 모두 포함시켰다.

전체 참여자 1인당 평균 질문수는 2.9개였으며, 여학생 1인당 평균 질문수(3.2개)가 남학생 1인당 평균 질문수(2.6개)보다 많았으며, 평균 질문수가 가장 많았던 집단은 중학교 1학년 여학생(3.8개)이었다. 참여자 1인당 평균 질문수가 가장 적었던 집단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2.1개)이었다. 이 집단의 경우 무응답자가 가장 많은 집단이었다. 이 집단의 소극성은, 교사가 설문을 받은 다른 집단과 달리 친숙하지 못한 연구자가 질문지를 받았고, 또 그들과 다른 성이어서, 성에 관한 것을 쓰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표 2> 대상자의 학년별 성별 성에 관한 질문수단위 : 개

	학년/성별	여학생	남학생	소계
중학생	1학년	127(3.8)	107(3.1)	234(3.5)
	2학년	118(3.3)	56(2.1)	174(2.7)
	소계	245(3.6)	163(2.7)	408(3.1)
고등학생	1학년	115(2.9)	75(2.4)	190(2.7)
	2학년	96(2.7)	85(2.7)	181(2.7)
	소계	211(2.8)	160(2.5)	371(2.7)
계		456(3.2)	321(2.6)	779(2.9)

* ()안은 각 집단별 1인당 평균 질문수

연구대상자가 '성에 대해 알고 싶은 것 혹은 배우고 싶은 것'이라고 기술한 것, 즉 성에 대한 지식 요구는 모두 779개(100.0%)로 이를 내용에 따라 분류한 결과,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성적 충동, 행위 및 경향sexual drive, behavior and tendency(229개, 29.4%)', '생식기관 해부생리anatomy and physiology of reproductive system(140개, 18.0%)', '재생산reproduction(131개, 16.8%)', '성건강sexual health(89개, 11.4%)', '사춘기의 변화changes of puberty(69개, 8.9%)', '성문화sexual culture(64개, 8.2%)', '성개념concept of sex(31개, 4.0%)', '이성교재acquaintance between the other sexes(17개, 2.2%)', 그리고 '기타

(9개, 1.2%)' 등의 9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들에서 질문빈도가 가장 높은 항목인 '성적 충동, 행위 및 경향'은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을 제외하고

전 집단에서 모두 빈도수가 가장 많았다. 남여학생에서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항목은 '생식기관의 해부생리', '재 생산'이었으며, 다음 순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표 3〉 성에 대한 지식 요구 항목별 빈도

단위 : 개, (%)

항 목	여 학 생					남 학 생					계
	중1	중2	고1	고2	소계	중1	중2	고1	고2	소계	
사춘기의 변화	6 (4.7)	18 (15.3)	3 (2.6)	14 (14.6)	41 (9.0)	19 (17.8)	2 (3.6)	7 (9.3)	0 (0.0)	28 (8.7)	69 (8.9)
생식기관해부생리	24 (18.9)	40 (33.9)	29 (25.2)	19 (19.8)	112 (24.6)	6 (5.6)	4 (7.1)	12 (16.0)	6 (7.0)	28 (8.7)	140 (18.0)
재생산	22 (17.3)	17 (14.4)	19 (16.5)	20 (20.8)	78 (17.1)	19 (17.8)	11 (19.6)	9 (12.0)	14 (16.5)	53 (16.4)	131 (16.8)
성건강	13 (10.2)	5 (4.2)	14 (12.2)	9 (9.4)	41 (9.0)	16 (15.0)	4 (7.1)	11 (14.7)	17 (20.0)	48 (14.9)	89 (11.4)
성개념	3 (2.4)	2 (1.7)	0 (0.0)	3 (3.1)	8 (1.8)	5 (4.7)	9 (16.1)	2 (2.7)	7 (8.2)	23 (7.1)	31 (4.0)
성적 충동	39 (30.7)	25 (21.2)	39 (33.9)	20 (20.8)	123 (26.9)	30 (28.0)	18 (32.1)	21 (28.0)	37 (43.5)	106 (32.8)	229 (29.4)
행위 경향	0 (0.0)	0 (0.0)	6 (5.2)	1 (1.0)	7 (1.5)	2 (1.9)	3 (5.4)	5 (6.7)	0 (0.0)	10 (3.1)	17 (2.2)
이성교제	19 (15.0)	10 (8.5)	5 (4.3)	9 (9.4)	43 (9.4)	9 (8.4)	4 (7.1)	5 (6.7)	3 (3.5)	21 (6.5)	64 (8.2)
성문화	1 (0.8)	1 (0.8)	0 (0.0)	1 (1.0)	3 (0.7)	1 (0.9)	1 (1.8)	3 (4.0)	1 (1.2)	6 (1.9)	9 (1.2)
계	127 (100.0)	118 (100.0)	115 (100.0)	96 (100.0)	456 (100.0)	107 (100.0)	56 (100.0)	75 (100.0)	85 (100.0)	323 (100.0)	779 (100.0)

〈표 4〉 사춘기의 변화 지식 요구 빈도

단위 : 개(%)

항 목	여 학 생					남 학 생					계
	중1	중2	고1	고2	소계	중1	중2	고1	고2	소계	
신체적 변화	5	18	3	14	40	6	1	7	0	14	54(78.3)
- 전반적 성장	0	1	1	4	6	1	0	0	0	1	7(10.1)
- 변성기	1	0	0	0	1	2	0	0	0	2	3(4.3)
- 아담스 애플	1	2	0	0	3	0	0	0	0	0	3(4.3)
- 여드름	2	0	0	3	5	0	0	0	0	0	5(7.2)
- 유방	0	7	2	1	10	1	0	6	0	7	17(24.6)
- 체모	0	8	0	6	14	2	1	1	0	4	18(26.1)
- 기타	0	0	0	1	1	0	0	0	0	0	1(1.4)
정서적 변화	1	0	0	0	1	13	1	0	0	14	15(21.7)
- 성에 대한 호기	1	0	0	0	1	9	1	0	0	10	11(15.9)
- 심 증가	0	0	0	0	0	4	0	0	0	4	4(5.8)
- 심리적 동요	0	0	0	0	0	4	0	0	0	4	4(5.8)
계	6	18	3	14	41	19	2	7	0	28	69(100.0)

1. 사춘기의 변화에 대한 지식 요구

‘사춘기의 변화’ 항목에 포함된 질문은 69개(100.0%)로, 하부항목은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54개, 78.3%)’와 ‘정신적 변화(15개, 21.7%)’로 구분되었다(표 4 참조).

사춘기의 변화에 대해 여학생은 외모와 관련된 신체적 변화에 대해, 남학생은 정서적 변화 특히 사춘기에 성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지식 요구가 높았다. 학년별로 보았을 때, 여학생은 학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남학생에서 저학년은 정서적 변화에 대해 그리고 고학년은 여성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더 많이 요구하였다. 또 사춘기를 통과하고 있는 중학생들에서 고등학생들에서보다 사춘기의 변화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이런 결과는 여학생들이 사춘기의 과정에서 특히 외모 변화에 대해 민감하며, 키가 크고 날씬하며 큰 유방에 대한 사회적 선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학생들의 경우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성에 대한 호기심이나 심리적 동요에 당혹스러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생식기관 해부생리에 대한 지식 요구

‘생식기관 해부생리(140개, 100%)’는 생식과 관련한 남녀의 기관 혹은 생리적 거전을 질문하는 내용들이 포함되며, ‘생리(97개, 69.3%)’, ‘남성’의 생식기관(21개, 15.0%), ‘여성’의 생식기관(11개, 7.9%), ‘오르가즘(6개, 4.3%)’, ‘성호르몬(5개, 3.6%)’ 순으로 질문빈도를 보였다(표 5 참조).

〈표 5〉 생식기관 해부생리 지식 요구 빈도

단위: 개(%)

항 목	여 학 생					남 학 생					계
	중1	중2	고1	고2	소계	중1	중2	고1	고2	소계	
생리	19	37	24	14	94	0	0	1	2	3	97(69.3)
기전/주기/기간/양	2	14	8	3	27	0	0	0	0	0	27(19.3)
생리중후군	7	5	8	6	26	0	0	0	0	0	26(18.6)
임신과의 관계	4	4	1	2	11	0	0	1	0	1	12(8.6)
생리시 섭생	0	3	1	0	4	0	0	0	0	0	4(2.9)
여성(만)이 생리하는 이유	2	3	3	0	8	0	0	0	2	2	10(7.1)
남성의 생리유무	3	0	0	0	3	0	0	0	0	0	3(2.1)
신장과의 관계	0	6	2	2	10	0	0	0	0	0	10(7.1)
폐경	1	1	1	0	3	0	0	0	0	0	3(2.1)
기타	0	1	0	1	2	0	0	0	0	0	2(1.4)
여성	0	0	0	4	4	2	0	5	0	7	11(7.9)
성기의 구조	0	0	0	0	0	0	0	2	0	2	2(1.4)
치녀막	0	0	0	4	4	1	0	2	0	3	7(5.0)
자궁	0	0	0	0	0	1	0	0	0	1	1(0.7)
난자	0	0	0	0	0	0	0	1	0	1	1(0.7)
남성	0	3	5	1	9	3	4	3	2	12	21(15.0)
음경	0	2	0	0	2	0	1	2	0	3	5(3.6)
정액과 정자	0	1	1	0	2	1	0	0	0	1	3(2.1)
몽정	0	0	3	0	3	2	0	0	1	3	6(4.3)
발기	0	0	1	1	2	0	3	1	1	5	7(5.0)
성호르몬	4	0	0	0	4	1	0	0	0	1	5(3.6)
남성의 여성호르몬 유무	1	0	0	0	1	0	0	0	0	0	1(0.7)
성호르몬의 과다	3	0	0	0	3	1	0	0	0	1	4(2.9)
오르가즘	1	0	0	0	1	0	0	3	2	5	6(4.3)
정의	1	0	0	0	1	0	0	3	0	3	4(2.9)
여성 오르가즘 유무	0	0	0	0	0	0	0	0	2	2	2(1.4)
계	24	40	29	19	112	6	4	12	6	28	140(100.0)

이 항목의 질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생리'의 경우 '여성'의 생식기관 해부생리에 포함되어야 하나, '생리' 하부항목의 질문 특성을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 별도의 하부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생리' 하부 항목에 포함되는 질문들(97개, 69.3%)은 '생리의 기전/주기/기간/양(27개, 19.3%)', '생리증후군(26개, 18.6%)', '임신과의 관계(12개, 8.6%)', '여성(만)이 생리하는 이유(10개, 7.1%)', '생리후 신장 성장과의 관계(10개, 7.1%)', '생리시의 섭생(4개, 2.9%)', '남성의 생리유무(3개, 2.1%)', '폐경(3개, 2.1%)', 생리와 관계된 '기타' 질문(2개, 1.4%) 등이었다. 이 하부항목에 대한 참여자들의 지식 요구는 거의 대부분이 여학생들의 것(94개)이었고 남학생들의 질문(3개)은 매우 소수였다.

이 하부항목에 대한 참여자들의 지식 요구는 생리가 시작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기가 불규칙하고 더 심한 생리통을 경험하는 여학생들, 특히 여중학생들이 왜 여성들만이 생리를 해야 하는지, 남성들은 생리를 하지 않는지와 항의하면서 생리로 인한 불편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생리 시작 후의 '신장의 성장'과 '다이어트' 등에 대한 질문은 '사춘기의 변화' 항목에서 나타난 것처럼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날씬하고 큰 키'에 대한 선호를 그대로 보여준다. 하지만 여학생들의 폐경에 대한 지식 요구는 매우 낮았다. 남학생들의 경우는 생리에

대한 지식 요구가 매우 낮았으며, 자신들의 경험과 관련이 없는 것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내었다.

생식기관 해부 생리항목에서 '생리'를 제외한 하부항목에 대한 지식 요구는 남학생들에서 더 많았으며, 남녀 학생들의 질문의 함의는 차이가 있었다. 남성의 생식기관 해부생리에 대해 여학생들은 정의('무엇인가')를 물은 반면, 남학생들은 현상(몽정이나 발기)의 이유 혹은 기전('왜 그런가')에 대해 알고 싶어하였다. 여성의 생식기관 해부생리에 대해서는 남학생이 더 다양한 기관에 대해 알고 싶어하였다. 특히 처녀막에 대해 여학생들은 '파열'에 대해 남학생들은 '기능'에 대해 물었다. 여학생들, 특히 중학교 1학년에서 성호르몬에 대한 질문이 많았으며, 남학생들은 고등학생들에서 오르가즘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3. 재생산에 대한 지식 요구

'재생산reproduction'은 2세의 생산과 관련한 질문을 포함하며, 이 지식 요구 항목으로 분류된 질문(131개, 100.0%)의 하부항목은 '임신과 분만(99개, 75.6%)', '불임(24개, 18.3%)' 그리고 '유산(8개, 6.1%)'에 관한 것이었다(표 6 참조).

〈표 6〉 재생산 지식 요구 빈도

단위 : 개(%)

항 목	여 학 생					남 학 생					계
	중1	중2	고1	고2	소계	중1	중2	고1	고2	소계	
임신과분만	13	11	18	14	56	18	6	9	10	43	99(75.6)
유산	1	0	1	0	2	1	1	0	4	6	8(6.1)
불임	8	6	0	6	20	0	4	0	0	4	24(18.3)
계	22	17	19	20	78	19	11	10	14	53	131(100.0)

1) 임신과 분만에 대한 지식 요구

임신과 분만에 대한 지식 요구는 총 99개(100.0%)의 질문에서 나온 것으로, '임신(78개, 78.8%)', '분만(13개, 13.1%)', '태아(8개, 8.1%)'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표 6-1 참조).

임신에 대한 질문은 '임신기전'에 대한 것이 가장 많았지만, 이것은 '임신과 성행위의 관련성', '배란기', '남성의 임신'과 같은 세부항목에 대한 지식요구와 연관되는 것으로 보여, 참여자들이 어떻게 아기가 생기는지와 같은 아주 기본적인 성식식에 대해서 높은 요구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학년별 지식 요구의 차이

를 보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임신과 관련한 질문 빈도가 높았으며, 특히 '임신시의 변화'나 '배란기'에 대해 여고생들의 질문이 많았다. 그리고 여학생들은 '임신시의 변화'와 '병리적 영향'에 대한 질문이 남학생보다 많아서 앞으로 직접 경험하게 될 현상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또 '여성(만)이 임신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여성(만)이 생리를 해야 하는 이유'와 함께 임신이 여성의 삶에 주는 부담감으로 느끼고 있음을 드러냈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보다 '남성의 임신'에 대한 질문이 더 많았으며, '임신의 책임'은 여학생들에게는 없는 질문(예: "여자가 임신하면 책임져야 하나

<표 6-1> 임신 및 분만 지식 요구 빈도

단위 : 개(%)

항 목	여 학 생					남 학 생					계
	중1	중2	고1	고2	소계	중1	중2	고1	고2	소계	
임신	9	6	16	8	39	15	4	4	10	33	72(72.7)
기전	0	2	6	1	9	3	3	3	0	9	18(18.2)
임신시의 변화	2	2	0	2	6	1	0	0	0	1	7(7.1)
임신의 병리적 영향	3	0	0	0	3	1	0	0	0	1	4(4.0)
임신과 성행위의 관련성	0	2	0	0	2	4	1	0	3	8	10(10.1)
배란기	0	0	7	2	9	0	0	1	2	3	12(12.0)
임신의 책임	0	0	0	0	0	1	0	0	1	2	2(2.0)
여성(만)이 임신을 해야 하는 이유	2	0	2	2	6	1	0	0	0	1	7(7.1)
남성의 임신	2	0	1	1	4	4	0	0	4	8	12(12.0)
분만	0	3	1	0	4	3	2	4	0	9	13(13.1)
분만기전	0	0	1	0	1	2	2	4	0	8	9(9.1)
분만시 통증	0	2	0	0	2	1	0	0	0	1	3(3.0)
분만시 절개	0	1	0	0	1	0	0	0	0	0	1(1.0)
태아	1	1	1	4	7	0	0	1	0	1	8(8.1)
성별의 구분	0	0	1	1	2	0	0	1	0	1	3(3.0)
성교의 영향	1	1	0	0	2	0	0	0	0	0	2(2.0)
태교	0	0	0	2	2	0	0	0	0	0	2(2.0)
태몽	0	0	0	1	1	0	0	0	0	0	1(1.0)
기타	3	1	0	2	6	0	0	0	0	0	6(6.1)
계	13	11	18	14	56	18	6	9	10	43	99(100.0)

요”, HM224)이었다. ‘임신과 성행위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남학생들의 질문이 더 많았는데, 질문의 함의도 거의 성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예: “근데 꼭 ×××를 해야 애를 낳나요”, MM221)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남학생의 임신과 분만에 대한 지식요구에서 학년별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배란기’에 대한 질문은 고등학교 남학생에게서만 나왔다.

‘분만’에 대한 질문은 ‘분만기전’ ‘분만시 통증’ ‘분만시 절개’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여학생들의

경우는 ‘분만시의 통증’, ‘분만시의 절개’에 대한 질문이 남학생보다 많았으며, 남학생들의 경우 대부분이 ‘분만기전’에 대한 질문이 여학생들의 그것보다 훨씬 많았는데, 질문의 내용은 분만 기전 자체라기보다 “아기는 왜 거기에서 나오는가(MM126)”하는 식으로 여성의 생식기에 대한 궁금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였다.

‘태아’에 대한 지식 요구는 태아의 ‘성별구분’에 대해, 그리고 임신시 태아에게 주는 ‘성교의 영향’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리고 ‘태교’와 ‘태몽’에 대한 지식 요구도 있

<표 6-2> 유산 지식 요구 빈도

단위 : 개(%)

항 목	여 학 생					남 학 생					계
	중1	중2	고1	고2	소계	중1	중2	고1	고2	소계	
인공유산	1	0	0	0	1	0	0	0	4	5	6(75.0)
정의	0	0	0	0	0	0	0	0	1	1	1(12.5)
이유	0	0	0	0	0	1	0	0	0	1	1(12.5)
불임가능성	1	0	0	0	1	0	0	0	1	1	2(25.0)
불법성	0	0	0	0	0	0	0	0	2	2	2(25.0)
자연유산 원인	0	0	1	0	1	0	1	0	0	1	2(25.0)
계	1	0	1	0	2	1	1	0	4	6	8(100.0)

있으며, 태아에 대해서는 여학생들의 질문이 더 많았다.

임신 및 분만에 대한 지식 요구는 참여자들이 각자의 성별의 입장에서 미래에 경험하게 될 것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들의 경우는 임신과 분만, 태아 등에 대한 질문에서 임신으로 인한 자신들의 부담을 드러냈다. 남학생들의 경우, 임신과 분만이 재생산 항목에서 질문수가 가장 많았던 하부항목이었으며, 성행위와 임신과의 관련성, 배란기, 임신의 책임에서 남성의 역할을 반영하는 지식 요구를 나타냈으며, 남성의 임신 가능성과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자 하였다.

2) 유산에 대한 지식 요구

유산에 대한 지식 요구 하부항목에 대한 질문 빈도(8개, 100.0%)는 다른 항목에 비해 매우 낮았다(표 6-2 참조). 유산에 대한 질문은 ‘인공유산(6개, 75%)’과 ‘자연유산(2개, 25%)’에 대한 것이었다. ‘인공유산’에 대해 참여자들은 ‘정의’, ‘이유’, 인공유산 후의 ‘불임가능성’ 그리고 인공유산의 ‘불법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자연유산에 대한 것은 ‘원인’에 대한 질문 뿐이었다. 유산에 대한 질문은 재생산의 다른 하부항목과 달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았다.

3) 불임에 대한 지식 요구

불임에 대한 지식 요구(24개, 100.0%)는 모두 불임의 원인, ‘여성’측 원인(19개, 79.2%)과 ‘남성’측 원인

(5개, 20.8%)에 대한 것이었다(표 6-3 참조). 여학생들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차가운 것’에 관련한 것(예: “차가운 곳에 자주 앉고 손발이 차가우면 아기를 갖지 못하게 되요”, MF215; “아기집이 차면 왜 아기를 못 가져요”, MF229; “몸이 차면 왜 아기를 못 가져요”, HF235)으로, 전통적인 임신 섭생과 관련하여 몸이 냉한 것 혹은 몸을 냉하게 하는 것이 임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이 질문하였다. 다음은 불임의 ‘일반적 원인’과 ‘자궁이상’, ‘난자이상’, 그리고 ‘비만’이 임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물었으며, 남성측의 불임원인에 대해 질문한 여학생은 1명이었다. 남학생들의 경우는 모두 남성의 불임원인에 관한 것으로(예: “고환이 하나 밖에 없으면 아기를 못 가지나요”, MM202)라고 물었으며, 이들은 모두 중학교 2학년이었으며, 다른 남학생 집단에서는 불임과 관련한 질문이 없었다. 불임에 대한 지식 요구는 대부분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생물학적 성과 관련한 불임 원인을 궁금해하는 것이었다. 이 하부 항목에 대해 여학생들의 질문빈도가 남학생들보다 높았다.

4. 성건강에 대한 지식 요구

‘성건강’ 항목은 생식기계의 질환과 생식의 조절을 위한 방법에 관한 질문들(89개, 100.0%)로 ‘에이즈와性病(34개, 38.2%)’, ‘포경수술(28개, 31.5%)’, ‘피임(19개, 21.3%)’, 그리고 ‘여성질환(9개, 10.1%)’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었다(표 7 참조).

〈표 6-3〉 불임 지식 요구 빈도

단위: 개(%)

항 목	여 학 생					남 학 생					계
	중1	중2	고1	고2	소계	중1	중2	고1	고2	소계	
여성	7	6	0	6	19	0	0	0	0	0	19(79.2)
일반적 원인	4	1	0	1	6	0	0	0	0	0	6(25.0)
차가운 것	0	3	0	5	8	0	0	0	0	0	8(33.3)
자궁이상	2	1	0	0	3	0	0	0	0	0	3(12.5)
난자이상	0	1	0	0	1	0	0	0	0	0	1(4.2)
비만	1	0	0	0	1	0	0	0	0	0	1(4.2)
남성	1	0	0	0	1	0	4	0	0	4	5(20.8)
고환이상	0	0	0	0	0	0	4	0	0	4	4(16.6)
정자이상	1	0	0	0	1	0	0	0	0	0	1(4.2)
계	8	6	0	6	20	0	4	0	0	4	24(100.0)

〈표 7〉 성건강 지식 요구 빈도

단위 : 개(%)

항 목	여 학 생					남 학 생					계
	중1	중2	고1	고2	소계	중1	중2	고1	고2	소계	
피임	0	3	1	4	8	6	0	2	3	11	19(21.3)
방법일반	0	0	1	3	4	6	0	0	0	6	10(11.2)
콘돔	0	3	0	0	3	0	0	1	2	3	6(6.7)
피임약	0	0	0	0	0	0	0	1	1	2	2(2.2)
체온주기법	0	0	0	1	1	0	0	0	0	0	1(1.1)
포경수술	2	1	7	0	10	9	2	2	5	18	28(31.5)
남성(만)이 해야 하는 이유	1	1	6	0	8	9	2	2	5	18	26(29.2)
시기	0	0	1	0	1	0	0	0	0	0	1(1.1)
여성의 포경수술	1	0	0	0	1	0	0	0	0	0	1(1.1)
에이즈와 성병	9	0	4	4	17	0	2	7	8	17	34(38.2)
에이즈	9	0	4	0	13	0	2	7	3	12	25(28.1)
성병	0	0	0	4	4	0	0	0	5	5	9(10.1)
여성질환	2	1	2	1	6	1	0	0	1	2	8(9.0)
유방암 자궁암	1	0	0	1	2	0	0	0	1	1	3(3.4)
냉	0	1	2	0	3	1	0	0	0	1	4(4.5)
기타	1	0	0	0	1	0	0	0	0	0	1(1.1)
계	13	5	14	9	41	16	4	11	17	48	89(100.0)

‘피임’에 대한 지식 요구 세부항목은 피임 ‘방법 일반’ ‘콘돔’, ‘피임약’, ‘체온주기법’ 등에 관한 것으로 대부분 피임방법을 묻는 것이었다. 여학생들의 ‘피임’에 대한 질문은 콘돔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등학생들의 질문이었다. 남학생들 역시 ‘피임’에 대한 질문 역시 방법을 묻는 것이었으나, 참여자들 중에는 ‘피임약’에 대해 “피임약을 먹으면 생리를 안하나요(HM219)”라고 물어 피임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피임에 대해서는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의 질문이 많았으며, 두 집단 모두 피임에 대해 “완벽한 방법”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어하였으며, 여학생들은 고학년에서 질문이 많았던 반면, 남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에서 질문이 많았고, 고학년들은 구체적인 피임법에 대해 질문하였다.

‘포경수술’에 대해서는 ‘남성(만)이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 포경수술의 ‘시기’와 ‘여성의 포경수술’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여학생들은 ‘포경수술’을 해야 하는 ‘이유’, ‘시기’와 ‘여성의 포경수술’에 대해서도 물었다. 남학생들은 모두 “왜 여자들은 안하는 포경수술을 남자들은 해야해요(MM115)”라는 식의 질문을 하였다. ‘포경수술’에 대한 질문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많아 남학생들이 이에 대해 느끼는 증압감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여학생들이 생리나 임

신에 대해 “여성들만 해야 하느냐”고 불만을 표현한 것처럼, 남학생들은 “왜 남자들만 포경수술을 해야 하는가”하고 물었다.

‘에이즈와 성병’ 하부항목에 대한 참여자들의 질문은 대부분 ‘에이즈’에 관한 것이었으며, ‘에이즈’에 대해 ‘원인 및 감염경로’, ‘치유가능성’, ‘정의’, ‘예방법’, ‘증상’ 등의 질문이 나왔고, ‘성병’에 대해서는 정의, 종류, 증상, 예방법 등을 물었다. 에이즈와 성병에 대해 여학생들의 경우는 에이즈에 대한 질문은 중학생이, 그리고 성병에 대한 질문은 고등학생들이 많았다. 남학생의 경우는 에이즈와 성병 모두 고등학생에게서 질문이 많았다.

‘여성질환’ 세부항목에 대한 질문은 다른 성건강 세부항목보다 적었는데, 질문수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더 많아, 이 하부항목에 대한 지식 요구 역시 참여자들의 성과 관련하여 빈도 차이를 보였다. 참여자들은 유방암과 자궁암, 냉의 원인 등에 대해 알고 싶어하였다.

5. 성개념 지식에 대한 지식 요구

성개념에 대한 질문은 ‘성별의 차이(19개, 61.3%)’와 ‘성의 정의(12개, 38.7%)’ 하부항목을 포함하였다(표 8 참조).

〈표 8〉 성개념 지식 요구 빈도

단위 : 개(%)

항 목	여 학 생					남 학 생					계
	중1	중2	고1	고2	소계	중1	중2	고1	고2	소계	
성별 차이	2	0	0	1	3	5	4	0	7	16	19(61.3)
이유	1	0	0	0	1	5	2	0	0	7	8(25.8)
성장차이	1	0	0	1	2	0	0	0	0	2	4(12.9)
신체구조차이	0	0	0	0	0	0	2	0	7	7	7(22.6)
성의 정의	1	2	0	2	5	0	5	2	0	7	12(38.7)
계	3	2	0	3	8	5	9	2	7	23	31(100.0)

‘성별 차이’에 대한 질문은 성별차이의 ‘이유’, ‘성장 차이’, ‘신체구조의 차이’에 대한 것이었다. 이 하부항목의 경우 남학생들에서 여학생보다 질문이 훨씬 많았는데, 성별 차이의 ‘이유’에 대해 많이 물었다. ‘신체구조 차이’에 대한 질문은 여학생들에게는 없었으며, 남학생들은 ‘성장차이’에 대한 질문이 없었다. ‘성별 차이’에 대해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남녀의 신체 구조가 다른 이유를 궁금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런 뚜렷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느냐”고 묻는 것은 신체적 특성과 다른 그 무엇이 우리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의 정의’에 대한 지식 요구는 “도대체 성이란 무슨 뜻인가요(MF124)”와 같은 내용이었다. 이에 대한 여학생들의 질문은 남학생들의 질문과 그 내용이 다르지 않았다. 참여자들이 ‘성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을 묻는 질문에 대해 “성이란 무엇인가”를 되묻는 것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성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6. 성적 충동, 행위 및 경향에 대한 지식 요구

‘성적 충동, 행위 및 경향’에 대한 지식 요구는 전체의 질문 779개 중 229개(29.4%)로 중학교 2학년 여학생 집단을 제외하고는 모든 집단에서 가장 높은 질문 빈도를

보였다. ‘성적 충동, 행위 및 경향’에 대한 지식 요구(229개, 100.0%)는 ‘성적 충동(73개, 31.9%)’과 ‘성적 행위 및 경향(156개, 68.1%)’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표 9 참조).

1) 성적 충동에 대한 지식 요구

‘성적 충동’에 대한 질문은 성적 충동이 생기는 ‘이유’(35개, 47.9%)’, ‘성적 자극에 대한 반응(26개, 35.6%)’, ‘성적 자극에 대한 반응억제 방법(11개, 15.1%)’, ‘성적 공상(1개, 1.4%)’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것이었다(표 9-1 참조).

청소년들은 ‘성적 충동’이 생기는 ‘이유’에서 ‘남성’의 성적 충동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 가장 많이 물었으며, 남녀 ‘일반’에게 성적 충동이 생기는 이유와 성적 충동의 ‘성별차이’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그러나 남성의 성적 충동의 이유를 질문하는 것처럼 ‘여성’의 성적 충동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또 참여자들은 성적 충동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 물으면서 남성의 성적 욕구나 성적 충동이 여성의 그것보다 강하며, 억제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런 질문은 우리 사회의 ‘남자의 성충동이나 성요구는 여성보다 강하고, 억제하기 어렵다’는 통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성의 성적 충동만을 묻는 질문은 남녀 학생 모두에게서 하나도 없었다.

‘성적 자극에 대한 반응’에 관한 질문은 성적 자극에

〈표 9〉 성적 충동, 행위 및 경향 지식 요구 빈도

단위 : 개(%)

항 목	여 학 생					남 학 생					계
	중1	중2	고1	고2	소계	중1	중2	고1	고2	소계	
성적 충동	8	12	8	4	32	12	11	9	9	41	73(31.9)
성적 행위 경향	31	13	31	16	91	18	7	12	28	65	156(68.1)
계	39	25	39	20	123	30	18	21	37	106	229(100.0)

〈표 9-1〉 성적 충동 지식 요구 빈도

단위: 개(%)

항 목	여 학 생					남 학 생					계
	중1	중2	고1	고2	소계	중1	중2	고1	고2	소계	
이유	6	6	6	3	21	3	2	2	7	14	35(47.9)
일반	1	0	1	0	2	0	0	0	3	3	5(6.8)
여성	0	0	0	0	0	0	0	0	0	0	0(0.0)
남성	4	6	4	3	17	2	2	1	3	8	25(34.2)
성별차이	1	0	1	0	2	1	0	1	1	3	5(6.8)
성적 자극에 대한 반응	1	6	2	0	9	7	3	5	2	17	26(35.6)
여성	1	3	1	0	5	2	1	1	2	6	11(15.1)
남성	0	3	1	0	4	5	2	4	0	11	15(20.5)
성적 자극에 대한 반응억제방법	1	0	0	1	2	2	6	1	0	9	11(15.1)
여성	0	0	0	0	0	0	0	0	0	0	0(0.0)
남성	1	0	0	1	2	2	6	1	0	9	11(15.1)
성적 공상	0	0	0	0	0	0	0	1	0	1	1(1.4)
계	8	12	8	4	32	12	11	9	9	41	73(100.0)

대한 '여성'의 반응과 '남성'의 반응을 묻는 것이었으며,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질문이 더 많았다. 여성 참여자들의 지식 요구는 여성의 반응에 대해서가 더 많았으며, 남성 참여자들은 남성의 반응에 대해 더 많이 질문하였다. 그리고 여학생들의 경우는 남성의 성적 자극에 대한 반응을 비교적 정확히 지적하면서 그 이유를 물었으나, 남학생들은 여성의 반응에 대해 일반적으로 질문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용어로 질문하는 경향을 보였다.

'성적 자극에 대한 반응억제방법'에 대해 참여자들은 성에 관계없이 남성의 성적 자극에 대한 반응 억제 방법을 물었다(예: "왜 야한 생각을 하면 그곳이 커지나요? 커지면 불편해요. 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MM214). 이런 질문들은 이 시기의 남학생들이 성적 자극이나 혹은 자극 없이도 발기하는 것에 대해 매우 당혹하고 난처해하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길 원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2) 성적 행위 및 경향에 대한 지식 요구

'성적 행위 및 경향 지식 요구' 하부 항목(156개, 100.0%)의 세부항목들은 '자위행위(58개, 37.2%)', '동성애(45개, 28.8%)', '이성애적 성행위(41, 26.3%)', 그리고 '성전환수술(12개, 7.7%)'로 구분되었다. 이 하부항목에서 남학생은 '자위행위'와 '이성애적 성행위'가 여학생보다 질문 빈도가 높았으며, 여학생은 '동성애'와 '성전환수술'이 남학생보다 높았다(표 9-2 참조).

'자위행위'에 대한 남녀참여자들의 질문빈도는 유사

하였으며, 두 집단 모두에서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집단에서 질문이 더 많았다. 여학생들의 질문은 '여성의 자위행위', 자위행위의 '정의', '느낌' 자위행위를 하는 '남성의 수'에 대한 것이 남학생에 비해 많았다. 이에 비해 남학생들은 자위행위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치는 '결과'와 일정기간 동안의 자위행위의 '바람직한 빈도', '자위행위의 선악(예: "자위행위는 나쁜가요", MM128)' 등을 물었다. 여학생보다 남학생에서 자위행위 빈도가 높고, 또 남학생들이 자위행위로 오는 건강상의 해로움이나 다른 해를 더 많이 걱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적 행위 및 경향'에 대해 두번째로 빈도가 높은 세부항목은 '동성애'로 이에 대한 여학생들의 지식 요구는 동성애의 '성행위', '이유' 그리고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또 동성애자들이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정체성을 가지는 이유'에 대해 그리고 동성애의 '정상성과 비정상성', '결혼과 임신'에 대해 질문하였다. 남학생들의 '동성애'에 대한 지식요구는 여학생들의 그것보다 수가 적었지만, 이들은 동성애를 하는 '이유', '에이즈와의 관계', '다른 성정체성을 가지는 이유'에 대해 여학생들과 유사한 내용의 질문을 하였다. 하지만 '사춘기와 동성애'의 관계나 동성애자들에게서 생기는 '성병'에 대한 질문은 남학생들만 하였다. 동성애에 관한 질문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많았으며, 세부항목에서 여학생들이 더 다양한 질문을 하였다. 이런 결과는 여학생들의 동성애에 대한 관심이 남학생보다 높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며, 최근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담론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9-2〉 성적 행위 및 경향 지식 요구 빈도

단위: 개(%)

항 목	여 학 생					남 학 생					계
	중1	중2	고1	고2	소계	중1	중2	고1	고2	소계	
자위행위	8	1	14	6	29	8	1	5	15	29	58(37.2)
정의	2	1	3	1	7	0	0	0	0	0	7(4.5)
이유	1	0	1	1	3	0	1	0	1	2	5(3.2)
행위의 선악	0	0	0	0	0	1	0	1	0	2	2(1.3)
결과	4	0	0	0	4	7	0	0	2	9	13(8.3)
여성의 자위행위	1	0	7	2	10	0	0	2	6	8	18(11.5)
느낌	0	0	3	0	3	0	0	0	1	1	4(2.6)
남성의 수	0	0	0	2	2	0	0	0	0	0	2(1.3)
바람직한 빈도	0	0	0	0	0	0	0	2	5	7	7(4.5)
이성애적 성행위	3	2	8	3	16	6	4	7	8	25	41(26.3)
이유	1	0	3	1	5	1	0	1	0	2	7(4.5)
행위방법	0	0	2	0	2	1	1	0	2	4	6(3.8)
행위가능횟수	1	0	0	0	1	0	0	0	3	3	4(2.6)
행위시의 반응	0	1	2	1	4	1	0	4	0	5	9(5.8)
많이 한 결과	0	0	0	0	0	0	0	1	2	3	3(1.9)
노화와와의 관계	0	1	0	0	1	0	0	0	1	1	2(1.3)
첫날밤	0	0	0	0	0	3	1	1	0	5	5(3.2)
기타	1	0	1	1	3	0	2	0	0	2	5(3.2)
동성애	13	9	9	4	35	4	2	0	4	10	45(28.8)
이유	3	2	2	0	7	0	0	0	3	3	10(6.4)
금지의 이유	2	0	0	0	2	0	0	0	0	0	2(1.3)
에이즈와의 관계	2	2	2	1	7	1	2	0	0	3	10(6.4)
성행위	2	1	4	2	9	0	0	0	0	0	9(5.8)
정상성 비정상성	1	1	0	1	3	0	0	0	0	0	3(1.9)
다른 성적체성을 가지는 이유	3	1	1	0	5	1	0	0	0	1	6(3.8)
결혼과 임신	0	2	0	0	2	0	0	0	1	1	3(1.9)
사춘기와 동성애	0	0	0	0	0	2	0	0	0	2	2(1.3)
성전환수술	7	1	0	3	11	0	0	0	1	1	12(7.7)
수술 방법	0	1	0	2	3	0	0	0	0	0	3(1.9)
수술 결과	6	0	0	0	6	0	0	0	1	1	7(4.5)
수술의 가능성	1	0	0	1	2	0	0	0	0	0	2(1.3)
계	31	13	31	16	91	18	7	12	28	65	156(100.0)

다. 많은 청소년들이 에이즈를 동성애의 필연적 결과로 보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비정상적인 관계로서의 동성애를 에이즈의 원인으로 강조하는 경향 때문으로 보인다.

‘이성애적 성행위’에 대한 질문 역시 다양하였는데, 가장 빈도가 많은 질문은 ‘성행위시의 반응’으로 성행위시에 경험하게 되는 느낌이나 통증에 대해 묻는 것이었다. 성행위를 하는 ‘이유’, ‘성행위 방법’도 참여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이었다. 이 외에 ‘첫날밤’에 대해서는 “왜 첫날밤 이야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흥분할까. 그리고 첫날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궁금해요(MM131)”하는 식으로 ‘이성애적 성행위’에 대해 후회적으로 질문하였다. 또 ‘성행위 가능횟수’, ‘노화와와의 관

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였다. ‘이성애적 성행위’에 대한 질문은 ‘동성애’와 달리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많았다. ‘첫날밤’에 대한 질문은 모두 남학생들에게서 나온 것이었으며, 또 ‘성행위를 많이 한 결과’에 대해서도 남학생들만이 물었다. 반면 여학생들은 성행위를 하는 ‘이유’에 대해 남학생보다 질문이 많았다.

‘성전환 수술’에 대한 질문은 성전환 수술로 달라지는 성기관을 묻는 ‘수술 결과’, ‘수술방법’, 성전환이 정말 가능한지를 묻는 ‘수술 가능성’에 관한 것이었다. ‘성전환 수술’에 대한 관심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서 훨씬 더 높았으며, 질문의 내용도 매우 다양하였다. 성전환 수술이 일상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식 요구가 높은

〈표 10〉 이성교제 지식 요구 빈도

단위 : 개(%)

항 목	여 학 생					남 학 생					계
	중1	중2	고1	고2	소계	중1	중2	고1	고2	소계	
경계	0	0	6	1	7	0	3	1	0	4	11(64.7)
여성이 좋아하는 남성	0	0	0	0	0	0	0	4	0	4	4(23.5)
우정과 사랑의 차이	0	0	0	0	0	2	0	0	0	2	2(11.8)
계	0	0	6	1	7	2	3	5	0	10	17(100.0)

것은 자료수집 직전에 TV에서 방영된 성전환 수술에 관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이성교제에 대한 지식 요구

‘이성교제’에 대한 지식요구는 청소년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한 다른 현상들보다 빈도가 낮았다(전체 질문의 3.1%). ‘이성교제(17개, 100.0%)’에 대해 참여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이성교제의 ‘경계(11개, 64.7%)’에 관한 것이었다(표 10 참조). 이들은 “이성교제는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HF134)” “저희 나이 16세에는 여학생과 어디까지가 선인가요(MM206)”라고 묻어서, 이 시기의 남녀사이에 가능한 관계에 대한 지침을 요구하였다. 이런 질문은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

에게서 많았으나 질문 내용은 유사하였다. ‘여성이 좋아하는 남성’, ‘우정과 사랑의 차이’에 대해서는 모두 남학생들이 질문하였다. 학년별로 보았을 때, 여학생의 경우는 이성교제에 대한 질문자가 모두 고등학생이었으나, 남학생의 경우는 중학생에게서도 있었고,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질문이 없었다.

8. 성문화에 대한 지식 요구

연구 참여자들의 ‘성문화(64개, 100.0%)’에 대한 지식 요구는 ‘성폭력(28개, 43.8%)’, ‘정력(14개, 21.9%)’ ‘음란물(12개, 18.8%)’, ‘유흥문화(3개, 4.6%)’, 그리고 성문화에 대한 ‘기타(7개, 10.9%)’와 같은 하부항목들을 포함하였다(표 11 참조).

〈표 11〉 참여자들의 성문화 지식 요구 빈도

단위 : 개(%)

항 목	여 학 생					남 학 생					계
	중1	중2	고1	고2	소계	중1	중2	고1	고2	소계	
성폭력	12	8	1	2	23	3	0	2	0	5	28(43.8)
정의	0	1	0	0	1	0	0	0	0	0	1(1.6)
원인	2	2	1	0	5	2	0	0	0	2	7(10.9)
피해결과	5	1	0	0	6	0	0	0	0	0	6(9.4)
피해대책	3	2	0	2	7	0	0	0	0	0	7(10.9)
피해자	1	0	0	0	1	0	0	1	0	1	2(3.1)
가해자	1	2	0	0	3	1	0	1	0	2	5(7.8)
유흥문화	3	0	0	0	3	0	0	0	0	0	3(4.6)
음란물	4	1	0	0	5	2	1	2	2	7	12(18.8)
이유	2	1	0	0	3	2	0	1	2	5	8(12.5)
유해성	0	0	0	0	0	0	1	1	0	2	2(3.1)
기타	2	0	0	0	2	0	0	0	0	0	2(3.1)
정력	0	1	2	5	8	2	3	1	0	6	14(21.9)
정의	0	1	0	0	1	0	0	0	0	0	1(1.6)
정력제	0	0	0	5	5	0	0	0	0	0	5(7.8)
바이그라	0	0	0	0	0	2	1	0	0	3	3(4.7)
기타	0	0	2	0	2	0	2	1	0	3	5(7.8)
기타	0	0	2	2	4	2	0	0	1	3	7(10.9)
계	19	10	5	9	43	9	4	5	3	21	64(100.0)

‘성폭력’에 대해 참여자들은 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과 ‘피해대책’에 대해 물었다. 또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의 ‘피해결과’와 성폭력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 성폭력의 ‘정의’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였다. ‘성폭력’에 대한 여학생들의 질문은 남학생의 그것보다 많았으며, 이는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가 여성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은 ‘피해 결과’나 ‘피해대책’에 대해 지식 요구가 높고, 특히 피해 결과에 대해 임신과 연관시키면서 “성폭력 당해 임신하면…”(MF118)” 혹은 “성폭행 당하면 무조건 임신하나요(MF225)”라고 묻는 것은 성폭력 피해에 대해 이들이 무력하게 느끼며, 대처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또 성생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학생 참여자들은 여학생들보다 성폭력에 대한 질문이 훨씬 적었으나, 남학생들만이 성폭행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는가 질문하였으며, 성폭력이 나쁜 줄 알면서 왜 하는가 하는 ‘원인’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성문화에 대한 지식 요구 하부항목에서 두번째로 빈도가 높은 ‘정력’에 관한 것이었는데, ‘정력제’의 효능에 대한 질문과 함께, ‘바이그라’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기타’의 성적 만족감을 높이기 위한 것들(예: “해바라기 수술[필자주: 음경의 포피에 이물질을 넣어서 변형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청소년들의 은어]은 왜 하나요”, HF111)과 정력의 ‘정의’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정력’에 대한 질문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조금 더 많았으며, 남학생들은 성적 만족감을 높이기 위한 ‘기타’의 방법들과 ‘바이그라’에 대해, 그리고 여학생들은 ‘정의’, ‘정력제’에 대한 질문이 더 많았다.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것은 ‘음란물’에 대한 것이었는데, 연구 참여자들은 에로 영화나 누드 사진을 만들거나 보는 ‘이유’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였으며, 이런 음란물을 보는 것의 ‘유해성’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기타’ 질문으로는 “왜 에로 영화는 성인들만 볼 수 있게 하는 건가요(MF102)”라고 묻는 것들이 포함되었다.

이외에 ‘유흥문화’에 대한 질문으로 “술집에는 술만 팔지 왜 여자도 있어야 하요(MF106)”와 같이 여성이 접대하는 유흥문화에 대한 질문과 함께 윤락의 정의를 묻는 것이 있었다.

위의 결과처럼 성폭력에서 스스로 피해자일 수 있다고 여기는 여학생의 질문이 압도적으로 많고, ‘남성의’ 정력에 대해 궁금해하며, 여성이 접대하는 유흥문화에 대한 설명을 요하는 참여자들의 지식 요구는 남성중심적 혹은 성기중심적인 우리 사회의 성문화에 대해 참여자들, 특히 여학생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참여자들은 자신들에게는 금지하면서 성인들에게만 허용되는 음란물의 시청과 제작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따졌다.

9. 성에 관한 기타의 지식 요구

연구 참여자들의 성에 대한 기타 지식 요구(9개)는 ‘동물의 성(4개)’에 대한 것과 여기에도 속하지 않는 다양한 ‘기타’ 질문들(5개)이 있었다(표 12 참조).

‘동물의 성’에 대해 묻는 참여자들은 모두 남학생이었으며, 이들은 동물의 성에 대한 궁금증을 나타내는 것과 함께 인간의 성을 말하기 곤란함을 동물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성에 관한 기타의 지식 요구에서 나머지 질문들은 “성교육 비디오와 야한 비디오의 차이(HM123)”, “남성의 동정감별법(HF224)” “잘생기고 못생긴 것의 경계(MM101)” 등에 대한 질문이었다.

V. 논의 : 성에 대한 이해

청소년의 성지식 요구-성에 대해 알고 싶거나 배우고 싶은 것-에 대한 조사는 그들의 성에 대한 이해-성을 무엇이라고 보는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왜냐하면, 성이 우리에게 의미있는 것이 되는 방식은 우리가 질문하는 종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DeMacro,

〈표 12〉 성에 관한 기타 지식 요구 빈도

단위 : 개(%)

항 목	여 학 생					남 학 생					계
	중1	중2	고1	고2	소계	중1	중2	고1	고2	소계	
동물의 성	0	0	0	0	0	0	1	2	1	4	4(44.4)
기타	1	1	0	1	3	1	0	1	0	2	5(55.6)
계	1	1	0	1	3	1	1	3	1	6	9(100.0)

Campbell & Wuest, 1993) 때문이다.

성지식 요구에서 드러난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성은 성 개념의 네 가지 의미-생물학적 성, 성역할, 성관계, 섹슈얼리티-를 다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들의 성 이해는 주로 생물학적 성과 성관계를 포함하는 섹슈얼리티에 초점을 두는 것이었고, 성역할 개념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참여자 일부의 질문은 우리 사회의 성역할 개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였다. 여기서는 생물학적 성, 성역할 그리고 성관계를 포함한 것으로서의 섹슈얼리티라는 측면에서 참여자들의 성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생물학적 성에 대한 이해

청소년들의 생물학적 성에 대한 이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생물학적 성에 따른 관심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특히 재생산 항목은 여학생들의 질문이 매우 많은 반면, 남학생들은 유산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학생들보다 적었다. 또 질문 내용에서도 여학생들은 생리, 임신, 분만, 태아 등에 대한 질문에서 여성으로서의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하게 될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남학생들은 생리에 관한 질문은 매우 소수였고, 또 임신에 관해서도 성행위와 임신의 관련성, 배란기, 임신에서 남성의 책임 등에 대한 질문으로 자신들이 관련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였다. 반면 성건강에서 하부항목 포경수술에 관한 질문은 남학생들이 많았다. 또 재생산의 하부항목 불임의 경우에도 여학생들의 경우는 여성측의 원인을, 남학생들은 남성측의 불임원인을 더 많이 물었다. 이런 질문 경향은 일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성교육이 자신의 성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자신과 다른 성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볼 때(부산여성사회교육원 성교육위원회, 1997, p.18), 남학생은 남성의, 여학생은 여성의 해부생리가 아니라 이 둘 다를 함께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두번째 경향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물학적 성으로 경험하는 현상에 대해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여학생 참여자들은 왜 여성만이 생리를 하고 임신해야 하는가, 그리고 남학생들은 여성은 하지 않는 포경수술을 왜 남성만 해야 하는가하고 질문하였다. 이러한 항의는 해부생리학적 경험이 주는 신체적 불편감과도 연관이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에 가해지는 사회문화적 해석과 더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

를들어, 생리는 여성이 겪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그 문화적 의미는 사회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여러 문화에서 생리는 여성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엄격한 의식 절차와 예식으로 이와 같이 획득된 힘을 인정하고 축복해 준다. 그러나 다른 문화권에서는 생리를 불결의 상징으로 여기며, 생리 중인 여성을 고립시키거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복잡한 방법을 동원한다(앤더슨, 1986, p.80). 그리고 여성의 역할에 대해 좀더 전통적인 태도를 가진 여성일수록 생리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김은주, 1987; 김정은, 1992)는 생리에 대해서 가지는 여성들의 태도가 단순히 생리로 인한 신체적 불편감으로 인한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으로 학습된 것일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남성 혹은 여성 특유의 해부생리적 사실의 설명을 할 때 이를 의미화하는 방식과 내용은 지식을 전달받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교육이나 상담시에 생리나 임신, 포경수술 등, 살아가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일에 대해 정상적이고, 긍정적이며, 건강한 현상 혹은 반응으로 의미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세번째, 청소년들은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질문들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남성의 생리 유무, 임신시의 병리적 반응, 성호르몬, 생리시의 성교에 의한 임신 가능성과 생리와 임신과의 관계를 포함한 임신의 기전, 처녀막 파열에 대한 질문 등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십대 참여자들이 잘못된 성지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이러한 잘못된 이해는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또 생활에서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성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성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에 넣고 청소년들의 지식정도를 평가, 확인하며, 개개인이 가지는 의문 사항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네번째, 남학생 참여자들인 경우 여성의 성기 구조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이들은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질문하기도 하고, 우회적으로, 예를 들어 아기가 나오는 곳이 어디냐는 식으로 질문하기도 하였다. 이 질문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성교육 현장을 감안한다면, 여성의 성기(혹은 남성의 성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 이 질문들은 이지연(1994)의 주장처럼, 남녀의 성기가 등장하는 성교라는 핵심적 이야기는 가리고 '아기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긴다'는 간접적인 설명만 함으로써 근본적인 궁

금증은 해소하지 못하고 호기심만 더 키운 결과로 나온 것일 수 있다. 성교육시에 생식기관에 대해 얼버무리거나 신비화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더 효과적일 수 있고, 또 잘못된 상상과 호기심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다섯번째, 참여자들은 남녀의 성기를 지칭할 때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음경의 경우 '거시기', 'X' '물건' 등으로 그리고 여성의 성기인 경우는 '거기' 'X X' 혹은 'OO'라는 식으로 서술하였다. 이는 우리 말로 성기의 명칭을 거론하는 것이 욕하는 것과 유사한 행위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거나, 혹은 참여자들이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일 수 있다. 성에 대한 이해의 시작은 해부생리에 기반하여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또 성에 대한 이야기가 음담패설이 아니라,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라면, 학생들이 성기의 명칭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2. 성역할에 대한 이해

성역할 sex role은 여성/남성의 여성다운/남성다운 행동, 성격특성, 태도를 포괄하는 용어이다(임정빈, 정혜정, 1997, p.127). 성역할이 결정되는 요인을 자연(생물학적 성)에 의한 결과라고 보는 입장과 양육의 결과라고 보는 입장은 오랫동안 대립되어 왔으나, 최근의 새로운 조류는 자연적인 성차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식, 언어, 문화 그리고 권력, 지배, 정치 경제의 역동적 메커니즘이 생활세계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강득희, 1993).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가치가 부여되는 활동을 독점하거나, 독점은 아니라도 최소한 여성에 비해 월등한 선택권을 쥐는 남성지배적 상황(김동일, 1991)을 인정하는 성차별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팽배해 있다.

청소년들이 성개념의 한 부분으로 성역할을 고려한 예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었으며,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이 이에 대해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성역할 개념으로서의 성에 대한 질문은 주로 성문화 항목으로 분류된 것들이었다. 우선, 하부항목 성폭력에 대한 질문들은 여학생들에서 더 많았는데, 이들은 성폭력의 원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성폭력 피해

에 대한 무력함을 표현하였다. 성폭력 피해를 입으면 다 임신을 하는 것인가라는 식의, 피해에 대한 지나친 걱정은 여학생들이 임신의 기전을 이해하지 못한 것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과 무력감을 표현한 것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또 성폭력 예방교육을 주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해자 방지 차원에서 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성폭력은 성차별적 권력관계에서 권력을 가진 가해자(주로 남성)가 피해자(주로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므로써 발생하는 범죄 행위이며, 성폭력 가해자가 주로 남성임을 고려할 때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가해 예방 중심의 교육이 더 절실히 요구된다. 또 선행 연구들(김차영, 1990; 이옥철, 1990; 이은정, 1990)에서 보는 것처럼 '성피해' 혹은 '성적 피해'라는 용어가 성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실정을 감안할 때 여학생들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과도한 염려는 당연한 것일 수 있다. 레드레이 Ladray(1985/1995, p.74)가 강간을 당한 후 임신 공포가 너무 커서 설득하기 어려운 사례를 보고하고 있는 것처럼,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오히려 성폭력 피해시에 적절한 대응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성피해'와 같은 용어의 사용과 이를 함축하는 성폭력 피해 예방 교육은 자칫 성폭력이 피해자가 유발한 것이며, 그 피해는 어떤 경우에도 극복될 수 없는 치명적인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낳을 수 있다.

성역할과 관련하여 두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점은 여학생들이 외모에 대한 관심이다. 여학생 참여자들은 사춘기의 변화 항목이나 생식기관 해부생리 항목중 생리 하부항목에서 키가 크는 시기, 유방이 증대하는 시기, 방법, 여드름과 전신의 체모를 없애는 방법 등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는데, 이는 신체적 변화가 급격한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런 반응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여성의 외모에 대해 지나친 가치를 두는 조류와 관련이 있다. 외모관리가 여성에게만 국한된 관심사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외모는 남성보다 여성의 성역할과 관련하여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이다. 여성의 외모는 여전히 취업과 결혼의 중요한 조건이 되며, 그래서 여성의 역할이 꽃으로 비유되는 사회는 여성의 창조적 활동을 가로막고, 노동과는 분리된 장식적인 존재로 여기게 된다(이선옥, 1992).

세번째, 여성의 성역할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유희 문화에 대해 여학생들의 항의 섞인 질문이 있었다. 술집에서는 술만 팔면 되지 왜 여자 종업원이 있어야 하나냐는 질문은 우리 사회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가 없

을 정도로 여성들이 남성의 술시중을 드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는 것에 대한 항의일 것이다. 여성이 가정에서는 물론 유흥업소를 비롯한 노동 현장에서도 남성들의 시중을 드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은 성장기에 있는 여학생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 나라 성문화의 고질적인 문제로 받아드려질 수밖에 없다.

성차별적 성역할 고정관념은 차별을 당하는 여성에게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긍정적인 결과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성장한 여성들은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서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지 못하고 아내와 어머니로서 자신의 역할을 규정,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 또 이런 여성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학업과 직업적 성취욕구의 저하를 보이고, 낮은 자존감을 보인다. 성차별적 역할을 적용시키는 사회에서 남성들은 그 대표적인 역할인 가장으로서 일생동안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짐을 져야 한다. 그리고 이들은 성격이 남성적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으로 건강한 정서를 발달시키는데 장애를 경험하며, 또 개인적 특성과 자질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적지 않은 비남성적 특성을 지닌 남성들을 불행하거나 특수한 사람으로 격리시킨다(이영자, 1994). 따라서 성교육은 단순히 생물학적 성에 대한 지식과 이해 뿐만 아니라, 성역할의 이분적 규정이 미치는 폐해를 지적하고, 생물학적 성에 근거하여 고정된 남성성, 여성성보다는 양성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해

섹슈얼리티는 성적인 것의 특질을 의미하나, 넓게는 성에 대한 태도, 행동, 감정, 반응과 같은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임정빈, 정혜정, 1997, p187). 섹슈얼리티는 본능적 혹은 자연적이라고 가정되어 왔으며, 이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인간의 섹슈얼리티는 억압 혹은 억제되어야 함을, 또 다른 이들은 무한히 발산 혹은 해방되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섹슈얼리티의 표현에서 이러한 상반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자연적, 본능적 성을 규정하는 주장에는 공통점이 있다. 첫째, 양성간에는 명백한 구분이 존재하며, 둘째, 섹슈얼리티는 무소불위의 힘을 지닌 생물학적 명령이며, 그리고 셋째 섹슈얼리티는 이성애적 외 음부 성교라는 올바른 모델에서 기행적인 도착성에 이르는 피라미드적인 수직적인 위계를 구성한다(웁스,

1986, p.16-17)는 것이다. 이러한 형편에서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의 사회적 전제조건인 성역할과 육체적 쾌락과 욕망을 영유하는 문화적 방식인 섹슈얼리티는 불가분하게 연관되어 있고(웁스, 1986, p.61),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인 섹슈얼리티의 모습은 남녀간의 근본적인 차이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라는 가정에 기반해 있다. 이런 가정은 생물학적 여성과 생물학적 남성 사이의 성기적이고 생식적인 구분은 절대적일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성적 욕구와 욕망이 결정된다는 것을 당연시한다.

참여자들은 섹슈얼리티에 대해 자연스러운 것이면서도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이중적 관점을 보였다. 그들은 대부분 생리적 현상으로서의 성충동이나 발기나 몽정 그리고 자위행위에 대해서는 가치 표현없이 질문함으로써 부정적이기보다는 자연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성교는 '×××', '○○○'로 표현하거나 '그 짓'으로 표현함으로써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이런 태도는 임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으로 연결되었다(예: "그 짓을 해야만 아기를 가질 수 있나요", MH224). 참여자들의 이런 반응이나 태도는 우리 사회에서 섹슈얼리티에 대해 보이는 일반적인 관점이나 청소년의 그것에 대해 보이는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는 공개적으로는 섹슈얼리티의 표현을 꺼리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사석에서는 음담패설을 즐기고, 밤에는 성적 향락산업을 무제한으로 부양하고 있다. 또 청소년의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면서도 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성충동의 발생을 인정하고 자위행위에 대해서는 허용하면서, 상대가 있는 성관계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의 문제는 생식 현상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며, 성행위를 하면서도 이에 대해 더럽다는 사고를 떨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자들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해의 두번째 특징은 남성의 성충동은 여성보다 강하며, 이는 억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성충동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 물으면서 '남자와 여자는' 혹은 '남자는'이라고 지칭하면서 질문하였으나, '여성은'이라고 묻지 않았다. 또 그들은 직접적으로 '남성은 왜 성충동이 강한가', '왜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남성에게는 당연한 자위행위에 대해서도 '여성도' 자위행위를 합니까, 그리고 '여성도' 오르가즘을 느끼니까 라고 물었다. 또 성문화 항목에서 나타난 것처럼, 정력제의 사용이나 기타 성적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해바

라기 수술”, “칙칙이” 등)에 대한 질문에서도 여성의 그것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남성의 그것에 집중된 것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정력에 관한 담론과 실천에서 여성, 아이, 노인은 배제된다. 정력보강은 건강과 체력이라는 외피를 싸고 실제로는 강한 성적인 능력, 나아가 강한 성기적 능력을 가진 남성을 향한 실천과정으로써, ‘강한 남성’ 신화를 구축해 가는 기체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남성과 수동적인 여성이라는 기초 위에 남성적인 힘의 담론으로 정력을 위치시킴으로써 섹슈얼리티에 관련된 몇 가지 층위를 설정하고 섹슈얼리티를 분배하는 것이다(채규형, 1994).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남성의 성욕구와 그것의 충족은 본능적인 것으로 정당화하고, 여성은 성욕구가 없거나, 무시해도 좋은 것으로 혹은 성욕구를 가진 여성은 문제가 있는 존재로 보는 태도로 연결된다.

한편, 남성 참여자들은 또 ‘본능적인’ 자신들의 발기 현상에 대해 매우 난처해하였다. 여성 참여자들이 생리나 임신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만큼 남성참여자들은 음경이 커질 때의 불편감을 호소하였다. 발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위행위를 해도 좋고 권유하긴 하지만 이 방법을 언제나 사용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자위행위를 자주 해서는 안된다는 압박감이 있어 자위행위를 성충동의 완전한 해소 방법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남학생 참여자들은 “귀후비기”, “애국가 부르기” 등이 성적 자극에 의한 반응을 감소시키는 적절한 것인가를 물으며, 이런 난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자 하였다.

청소년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면서도 이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견해를 반영하였다. 그들은 동성애는 나쁜 것인가라고 묻기도 하였지만, 동성과의 성관계에서는 “모두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간접적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 견해를 반영하였다. 에이즈는 동성애 자체의 문제가 아니며, 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이성애적 관계나 마약중독자의 주사기 공동 사용, 감염된 혈액 사용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음에도 유독 동성애자 특히 남성 동성애자들이 질병의 가장 중요한 근원지로 경계되어 왔다. 이에 대해 워스(1986, p.142-145)는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혐오감이 동성애자들을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인 에이즈의 원인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한다. 그는 현대 사회에서 성적 타락으로 인한 도덕적 공황이 느끼는 이들이 도덕적 정화를 위해 그들을 희생양으로 만든다고 보았다. 그는 동성애의 원인이 무엇이든 동성애는 질병

이 아니며, 대상 선택과 성기적 성행동이라는 면에서 동성애는 이성애와 연속해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p.102)고 주장하였다.

섹슈얼리티에 대한 참여자들의 이해에서 네번째 특성은 이들이 청소년들에게 금지된 것이 왜 성인에게 허용되는 것인가에 대해 그 끊임없는 교육과 훈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궁금해 한다는 것이다. 에로 비디오는 왜 성인에게만 허용되는 것인지, 남에게 비난받지 않고 성행위를 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인지, 그들 나이에 허용될 수 있는 이성교제는 어느 선인가 등의 물음은 이러한 점을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도처에 널려있는 성적 표현물들과 우리 사회 성인들의 성적 행태를 보면서 청소년들이 왜 우리에게 유해하다고 금지되는 것이 성인들에게는 저렇게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항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만 18세미만이다’라는 이유로만 그들에게 금지의 이유를 정당화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섯번째로 참여자들 특히 남학생들 중에서는 인간의 성에 대해 말하기 곤란함을 동물의 성에 대한 질문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 개구리, 말, 알과 새끼 등에 대한 질문은 동물의 생식 자체에 대한 궁금함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의 우회법은 성교육시에 수정을 설명하기 위해 식물의 수정과정이나 동물의 교미과정(제주도교육청, 1996, p.21; 안창선, 김현옥, 1991, p.127-128)을 사용하는 것이 미치는 영향일 수도 있다. 인간의 성행위를 설명하면서 동식물을 이용하는 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사실에 대한 이해는 도울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인간의 성행위를 인간다운 행위로 설명하는 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인간의 성행위는 생식과 쾌락의 기능 외에 유대 혹은 관계의 측면-사랑-을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섯번째, 많은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질문의 근거를 “...를 보면” 하는 식으로 ‘비디오’, ‘누드사진’, ‘영화’, ‘에로영화’, ‘음란물’ 등에서 찾았다. 청소년들이 그들에게 금지되어 있는 이런 매체를 통해 성에 대한 지식을 구한다는 것은 여러 통로를 통해 확인되어 왔으며, 그리고 이런 행태가 그들에게 부정적인 성인식을 심는 것으로 염려되어 왔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런 매체들이 왜 부정적인 성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단지 그것들을 ‘보면 안되는 것’으로만 주지시키려 하였다. “에로 영화에 나오는 여자 배우들은 왜 임신 안해요(FM207)”라는 한 여학생의 질문은 그들에게 이야기되지 않은 점을 명확하게 지적한 것일

수 있다. 그 영화 속의 행위가 현실적인 행위와 다른 허구이며, 연출에 의해 진행되고, 선택적 시선으로 촬영된 것이라는 것을 청소년들도 알아야 한다. 명작, 명곡, 명화를 감상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무엇이 그것들의 무엇이 그들을 풍요롭게 하는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처럼, 금지된 매체들을 단순히 금지할 것이 아니라 그런 매체들을 해석하는 방법과 해로운 이유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요즘의 청소년들은 현재의 성인들이 성장할 때와 다른 시공간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성적 정보를 담은 더 다양한 매체에 더 빈번하게 노출되며, 더 쉽게 그것들을 구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 사회의 성인들은 성개발 풍조에 따른 청소년들의 가치관 혼란을 경고하고, 성문란을 개탄하며, 자신들의 성장 시기의 순진무구한 혹은 건전한 생활로 그들을 이끌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이런 전통적 가치를 언급하는 것은 가상의 황금시대를 꿈꾸는 것일 뿐이다(릭스, 1986, p.132).

이런 노력을 비판하는 것은 성교육이나 상담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해 교육하거나 상담할 때, 그들이 성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성에 대해 무엇을 알고자 하는가, 그리고 이런 이해와 질문을 생산/재생산하는 기제는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해 이러이러한 것은 알아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저러한 태도를 취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입하면서, 마치 그들이 우리 사회 성문화에서 고립된 섬에 있는 것처럼 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성지식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성에 대한 이해를 드러내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결과는 청소년 대상의 성교육과 성상담을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참여자는 임의로 선택된 남녀공학 중학교 1개교, 남녀 고등학교 각각 1개교에 재학중인 1, 2학년 학생 267명(여학생, 144명; 남학생, 123명)이었다. 연구참여자들에게는 그들이 성에 대해 알고 싶은 혹은 배우고 싶은 것을 3가지 씩 쓰도록 요구하였다.

참여자들의 성지식 요구 질문수는 모두 779개(여학생, 총 456개, 평균, 3.2개; 남학생, 총 323개, 2.6개)였다. 참여자들의 성지식 요구는 내용분석 결과 9개의 항목으로 범주화되었다. 이 항목들의 질문의 빈도는 '성적

충동, 행위 및 경향(229개, 29.4%)', '생식기관 해부생리(140개, 18.0%)', '재생산reproduction(131개, 16.8%)', '성건강(89개, 11.4%)', '사춘기의 변화(69개, 8.9%)', '성문화(64개, 8.2%)', '성개념(31개, 4.0%)', '이성교재(17개, 2.2%)', 그리고 '기타(9개, 1.2%)' 등의 9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가장 질문 빈도가 높은 항목인 '성적 충동, 행위 및 경향'은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을 제외하고 전 집단에서 모두 빈도수가 가장 많았다. 남여학생에서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항목은 '생식기관의 해부생리', '재생산' 이었으며, 다음 순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청소년들의 성지식 요구를 성에 대한 이해-생물학적성, 성역할, 그리고 섹슈얼리티-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몇 가지 특성이 발견되었다.

대상자들의 생물학적 성에 대한 지식 요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그 자신들의 생물학적 성에 따른 관심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또 그들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으로 경험하는 현상에 대해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일부 참여자들은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질문들을 하는 경향이 있었고, 남학생 참여자들인 경우 여성의 성기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남녀의 성기를 지칭하면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청소년들의 성역할에 대한 이해는 우리 사회의 남성 우월적 여성비하적인 이중적 성문화를 반영하였으나,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런 구조에 대해 의문을 표하였다. 성폭력에 대해서 참여자들, 특히 여학생 참여자들이 피해에 대해 무력하게 느끼고 있었다. 여학생들은 또 외모의 변화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여성이 남성을 접대하는 우리 사회의 유흥문화에 대해 항의하였다.

청소년들은 섹슈얼리티에 대해 그것이 생리적 현상으로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보면서도, 이성애와 연관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이중적 관점을 보였다. 또 그들은 남성의 성충동은 여성보다 강하며, 억제하기 어렵거나 억제할 수 없는 것이라 여겼다. 남성 참여자들 중 일부는 발기현상에 대해 난처해하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구했다. 참여자들은 동성애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면서 사회의 부정적인 견해를 반영하였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그들에게 금지된 섹슈얼리티의 표현이 왜 성인에게 허용되는 것인가에 대해 궁금해하였다. 참여자들 특히 남학생들 중에서는 성에 대해 말하기 곤란함을 동물의 성에 대한 질문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중 많은 수가 자신들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질문의 근거를 그들에게는 금지된 섹슈얼리티의 표현매체들에서 찾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성이 단순히 생물학적 의미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그들은 또 성을 자연스러운 것이며, 알고 싶은 것이라고 하면서도 부정적이고, 더러우며, 드러내서 말하기 곤란한 것으로 여겼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이나 성상담에서 그들이 마치 우리 사회의 성문화에서 고립되어 순진무구한 존재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우리 시대의 성문화 구성에 적극적인 구성자로서 인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억제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폭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청소년들을 미래의 성범죄 예비자가 아니라 그들 나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존재로 보아야 한다.

이상의 결과를 가지고 연구와 실무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연구 : 본 연구는 조사연구 결과를 내용분석하였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지식 요구나 이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점이 있다. 앞으로의 연구는 방법상 두 가지로 이루어 질 수 있다. 하나는 더 많은 대상자들에 대한 무작위 표본에 대한 성지식요구 조사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소수의 대상자에게 심층적인 접근을 함으로써 그들의 성지식과 성이해를 구성하는 기제를 알아보는 것일 수 있다.
2. 실무 :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들이 추측하는 것보다 성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또 이해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으로의 성교육에서는 성에 관련한 해부생리학적 사실을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해부생리적 사실에 부여되는 문화적 의미-특히 의학과 간호학에서-가 무엇인지를 다른 각도-특히 여성주의적 입장에서-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들에게 성교육과 성상담에 우리 사회의 이중적인 성문화 구성 기제를 설명하고 어떤 점이 문제인가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나아가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에게 금지된 것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가족과 성상담소 (1996). 학교 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9월 19일, 서울 종로성당에서 개최.
- 강득희 (1993). 생물학적 성차와 불평등. 여성한국사회 연구회(편), p.79-111. 여성과 한국사회.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김귀희 (1986). 일부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에 대한 태도와 성교육 요구도.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일 (1991). 남녀의 차이(3) : 사회심리학적 측면. 김동일(편), p.71-97, 성의 사회학.
- 김설희 (1991). 국민학교 성교육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야자 (1986). 도시 청소년의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 조사. 연세대학교 간호학논집, 9, 1-12.
- 김옥렬 (1995). 국민학교 고학년 아동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제주학교보건, 창간호, 21-34.
- 김옥순 (1991). 국민학교 성교육에 대한 인지분석.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주 (1987). 인성과 월경전기 중후군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18(1), 80-93.
- 김정옥 (1988). 학교 성교육의 내용체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은 (1992). 일부 여대생의 월경전후기 불편감, 월경에 대한 태도, 성역할 인식도의 관계. 모자간호학회지, 2(1), 55-69.
- 김차영 (1990). 서울시내 고등학교 교사의 성지식, 태도 및 학생에 대한 성교육 요구 조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3(1), 19-47.
- 레드레이, L. (1985/김수경 역, 1995). 나의 몸, 나의 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박영희 (1989). 일부 중고 여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경험에 대한 연구. 중앙의학, 54(8), 607-619.
- 방미라 (1990). 성교육이 여고생의 성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미친 효과. 한국학교보건학회지, 3(1), 48-58.
- 부산여성사회연구원 교육위원회 (1997). 성 바로 알기. 서울: 의암출판사.
- 서울특별시교육청 (1996). 성교육지침. 성남: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서울특별시교육청 (1998). 성과 행복. 성남: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심영희 (1992).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서울: 나남.
- 안창선, 김현옥 (1991). 학교성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앤더슨, M. (1983/이동원, 김미숙 역, 1987). 성의 사회학.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양해경 (1996). 학교 성교육의 실태 분석 및 새로운 제안. 가족과 성상담소(편), 학교 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가족과 성상담소.
- 여성사회교육원 (1997). 미래만들기. 서울: 여성사회교육원
- 여성상담소 (1996). 바람직한 학교 성교육을 위한 토론회. 10월 26일, 제주 카톨릭회관에서 개최.
- 윤가현 (1996). 청소년 성문화와 학교성교육의 방향. 가족과 성상담소(편). 학교 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가족과 성상담소.
- 웁스, J. (1986/서동진, 채규형역, 1994). 섹슈얼리티: 성의 성치. 서울: 현실문화연구.
- 이광재 (1990). 우리나라의 청소년 복지제도. 대한간호, 29(5), 10-17.
- 이선옥 (1992). 외모 콤플렉스. 여성을 위한 모임(편), p.143-172. 일곱 가지 여성 콤플렉스. 서울: 현암사.
- 이육철 (1990). 서울시내 국민학교 학생. 학부모의 성교육 요구도 조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3(1), 73-84.
- 이영자 (1994). 성과 사랑. 한국여성연구회(편). p. 89-118, 여성학 강의. 서울: 동녘.
- 이은정 (1990). 고교생과 고교생학부모의 성지식 및 태도, 성교육 요구 시기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3(1), 85-100.
- 이지연 (1994). 십대의 성을 찾아서. 김수기, 서동진, 엄혁(편), (p.95-113), 섹스, 포르노, 에로티시즘: 쾌락의 악몽을 넘어서. 서울: 현실문화연구.
- 임정빈, 정혜정 (1997). 성역할과 여성. 서울: 학지사.
- 장경숙 (1996). 성교육 집단상담이 중학생의 성지식 및 태도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제주도교육청 (1996). 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제주: 제주도교육청.
- 제주도교육청.
- 조선일보 (1996). 성교육: 내년부터 초중교생 대상 정규교육 실시. 8월 19일.
- 채규형 (1994). 정력: 건강과 성의 그물망. 김수기, 서동진, 엄혁(편), (p.199-215), 섹스, 포르노, 에로티시즘: 쾌락의 악몽을 넘어서. 서울: 현실문화연구.
- 최순희 (1990).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성교육 요구 조사연구: 수원 시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국학교보건학회지, 3(1), 119-134.
- 최은순 (1998). 법적 제도적 문제점. 청소년 성문화대책위원회(편), 청소년을 사고파는 향락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 청소년 성문화 대책위원회 발족기념 토론회 자료집.
- 푸코, M. (1976/이규현역, 1990). 성의 역사(1): 삶의 의지. 서울: 나남.
- 푸코, M. (1980/홍성민역, 1991). 육체의 역사. C. 고든(편). 권력과 지식. 서울: 나남.
- 플랑드랭, J. L. (1981/동문선 편집부 역, 1994). 성의 역사. 서울: 동문선.
- 한국성폭력상담소 (1997). 건강한 성만들기: 중학교 성교육지침서. 서울: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겨레 (1996a). 성폭행: 중학생 소녀가장 성폭행 출산, 7월 20일.
- 한겨레 (1996b). 성폭행: 사건일지(1992년 1월-현재), 7월 10일.
- 한겨레 (1996c). 성폭행: 유치원생 성폭행한 중학생 영장, 7월 10일.
- 한겨레 (1996d). 성폭행: 수백차례 음란전화 고교생 검거, 7월 13일.
- 한겨레 (1996e).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정교과목 신설은 배제. 7월 17일.
- 홍길유 (1989). 국민학교 성교육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DeMacro, R., Campbell, J., & Wuest, Ju. (1933). Feminist critique: Searching for meaning in research. ANS, 16(2), 26-38.

– Abstract –

Key concept : Need for sex knowledge, Adolescents

Needs for Sex Knowledge in Adolescents

*Lee, Eun Joo**

The purpose of this article was to get hold of adolescent's needs for sex knowledge and to reveal their understanding of sex. These results may be applied to the sex education and counselling for adolescent.

The participants of study were 267 students (females, 144 ; males, 123) who were the first and second grade form 1 middle and 2 high schools. They were asked to describe 3 questions that they wanted to know or to learn about sex.

Their questions about sex were total 779(girls, subtotal 456, mean 3.2 ; boys, subtotal 323, mean, 2.6). These questions categorized to 9 items by content analysis. The items were 'sexual drive, behavior and tendency(229, 29.4%)', 'anatomy and physiology of reproductive system(140, 18.0%)', 'reproduction(131, 16.8%)', 'concept of sex(31, 4.0%)', 'acquaintance between the other sexes(17, 2.2%)', and 'the others(9, 1.2%)' in order of frequency. The most frequent item that the student want to know or learn about sex was 'sexual drive, behavior and tendency' except girls of sophomore in middle school.

There were several features in participants' needs for sex knowledge as respects of the understanding of sex- biological sex, gender, and sexuality.

The prominent feature in knowledge need of biological sex was that the participants had the interests according to their biological sex. They had

the negative attitude to the phenomenons(ex, menstruation and pregnancy, phimosiectomy, etc) that they experienced or would experience due to their biological sex. A part of them asked the questions based the misconceptions and used the slangs or '× ×', ect. to name the male or female genitalia. The male students wanted to know the female genitalia.

The participants' understanding of gender reflected the sexism of our society, but they didn't accept and had doubts about the dual, hierarchical structure of that. The students, especially female seemed to be powerless to the harms of the sexual violence. Girls had much interest in their appearances and complained to our sexual culture that women comforted and served men.

The participants had the dual perspective that the sexuality as respects of physiologic phenomenon was considered as natural but that as related to heterosexuals was as negative. And they deemed that men's sexual drive was stronger than women's and was difficult or was not able to be inhibited. They had much interests in homosexuality but reflected the negative attitude to that in our society. Adolescent felt wonder why the expressions of sexuality of adult were permitted but theirs were not. Lastly, a part of boys substituted querying the sexuality of animals for asking that of human. Maybe it was because of the embarrassment to talk about human's sexuality directly.

The teenaged participants understood that the sex had not only the biological meanings but also the sociocultural meanings. They regarded the sex as natural and wanted to know it, but they had conceptions that it was difficult and embarrass to talk about it openly and directly.

* Cheju National University, Dept. of Nursing, Instructor